

#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성옥\*,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 Relations between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their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Sung-Ok Kang\*, Kyu-Soo Ha\*\*

The Doctoral Candidate in the Aged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지역의 35-65세 미만 중년층 35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년층의 노후준비도는 평균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정서적 준비도가 가장 높았고 가장 준비도가 낮은 변인은 경제적 준비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은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일상의 안녕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성공적 노화인식은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의 하위변인 중 심리사회적 안녕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정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중년층, 성공적 노화, 노후준비,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their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We used data from 350 participants, aged 35-64 in Seoul-Gyeonggi region. The hierachial regression analysis estim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n successful aging and their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iddle aged's level of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The level of their emotional preparation appeared highest and the level of economical preparation showed lowest.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dicated relatively high, and especially the level of comfortable everyday life showed highest.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on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were sex, age, marriage status, religion, occupation, monthly income, health condition, level of plan for the old age, and social activities frequency, and demonstrated that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effected on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positively.

**Key Words** : the middle aged, successful aging,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psychological well-being, comfortable everyday life, self-efficiency

Received 29 October 2013, Revised 25 November 2013

Accepted 20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Kyu-Soo Ha(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Email: ksh@office.hoseo.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인구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장기간의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노년기의 장기화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에 대한 준비는 곧 노년기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주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노년기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기인 만큼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노년기 이전부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인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음으로써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에 대해 적절히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머지않은 시기에 노년기에 도달할 중년층의 노후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장기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 비해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노인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미비는 개인차원에서의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1].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로의 편입을 앞둔 중년층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후준비 관련 연구들은 우리사회 중년층의 노후준비인식과 관심도는 높으나 실제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늘날 노인은 가정 내에서 어른으로 공경을 받는 대상도 아니고 가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서도 밀려나 있다[2]. 노년기는 길어지고 있는데 반해 부양인식의 변화로 노후에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면 여유롭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의 중년층은 앞으로 자신들의 노후의 삶에 대해 지금

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각도에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중년층은 노년기에 당면할 문제들을 미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 노후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다[2].

기존의 노인의 삶은 빈곤, 소외, 질병, 고독 등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인식도 쇠퇴의 시기가 아닌 지속적인 발달과정으로서 새로운 삶의 창조시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과정[3]으로서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노년기의 삶의 질 저하 예방과 노인 스스로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의 진입을 앞에 둔 중년층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성공적 노화인식은 중년층의 현재의 삶의 태도나 방식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노후준비 양상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곧 노년세대로 편입될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그에 따른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구는 향후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수립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긴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및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 실태나 노후준비 및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노년기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노년기에 대한 청사진이 계획되고 그 청사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노후에 대한 청사진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점에서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성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

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성공적 노화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중년층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도 및 성공적 노화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2.1 중년기의 특성과 생활과업

최근 들어 노년기의 성공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중년기를 주목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Lachman[4]은 초기 발달이나 노년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성공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특히 중년기에 주목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성인단계를 지칭하는 중년기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시기로서 인생의 전환의 시기, 위기의 시기, 성숙의 시기, 빈 보금자리시기,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 등 연구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설명된다. 중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하여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해 양육부담도 감소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기로 성취욕이나 생성감에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인생의 절정기이다[5]. 그러나 동시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노화가 시작되어 긴장과 상실, 위기감을 경험하는 시기로서 제2의 사춘기라고 명명될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다[6]. 즉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적 자아성찰에 관심을 갖는 시기이며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서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서 절정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인식하는 시기이다[7]. 그런 점에서 중년층은 현재의 생활에 대한 열정 및 욕구와 더불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년기를 어떻게 규정하건 전 생애발달 관점에서 볼 때 중년기는 성인기와 노년기를 연결시키는 중간 지점으로 앞으로 맞이할 노년기를 대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노후준비는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년기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은퇴준비 등 노후의 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8]. 정경희[9]는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년층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꾸준히 자신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에의 통합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자신의 노후준비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부양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하고 셋째, 양성평등사회 및 양계제로의 변화 등과 같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년기에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는 곧 노년기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노년기에 대한 준비는 곧 노년기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주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는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0].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태도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삶에 대한 충실감과 활력을 불어넣어줌으로써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는 노년기 진입을 앞에 두고 있는 중년층의 가장 중요한 생활과업이 노후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2.2 노후준비

#### 2.2.1 노후준비영역

노후준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달리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어왔던 것이 경제적 준비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합적 차원에서 노년기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건강과 능력, 가족 및 사회관계, 여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에 나타나는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 관련한 문제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경제적 문제영역으로 은퇴 후의 소득의 상실과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적응문제, 둘째, 신체적인 문제영역으로 건강의 악화, 저하된 기동성, 감각적 능력의 감소 등 신체의 변화

에 따른 경험의 적용문제, 셋째, 심리·정서적 문제영역으로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따른 감정에 대한 적용문제 및 레저의 욕구이다[11]. Gross et al.[12]은 노년기를 위하여 건강, 수입, 고독, 은퇴문제들과 함께 나이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생활에 대한 준비, 시간사용, 재정적인 문제, 결혼한 자녀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노후준비영역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홍숙자[13]는 노후설계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관계망 등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권기연·배문조[14]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추용 외[15]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준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영역을 가족·사회적 관계, 여가활동을 정서영역에 포함하여 노후준비를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 가. 경제적 준비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그 차이를 메우려는 노력이 경제적 노후준비이다[16]. 노후생활에 있어서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써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자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안락한 노년기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는 노후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노후에 대비한 경제적 대책을 세우는 목적은 여유 있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노후를 위한 적절한 경제적 준비는 노년기의 발달 잠재력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하며 중년기에 경제적 준비를 한 사람들은 은퇴를 편안하게 수용할 것이라 기대된다[17]. 은퇴 후인 노년기의 수입은 노년기 이전의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좌우된다.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이전에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준비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을 때 가능하다. 청년기, 특히 중년기에 노후자금

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없이 중년기를 보낼 경우 노후의 경제적 여건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득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또 가정 내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몰락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년층들의 경제생활패턴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기정년제도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조기퇴직은 노년기를 위한 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나. 신체적 준비

바람직한 노화는 긍정적인 정신자세와 좋은 육체적 건강을 가지고 사회적인 참여를 하며 오래 사는 것이다[18].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한 영역 중 건강은 매우 중요한 요소[19]로서 특히 신체적 건강은 노년기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Peterson[20]에 의하면 신체적 의미에서의 노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노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제한하고 운동과 참여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문제는 경제적 측면,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년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Rowe & Kahn[21]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질병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년기의 적응과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체적 건강이 나쁠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22] 무력감 수준이 높고[23] 우울증 정도가 더 높은[24]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노화는 정신적 노화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정신기능의 퇴화를 초래한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의미한다. 중년기는 성인 전반기부터 누적된 경험의 영향으로 노년기까지의 개인 간의 건강수준 편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시기이다[25]. 신체적 노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나 노화의 속도나 신체적 쇠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므로[26] 성공적 노년을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꾸준히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는 노력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

적 관심이 크게 요구된다.

#### 다. 정서적 준비

노년기 삶은 중년기의 삶의 모습과 생활양식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27]. Neugarten[28]은 한 개인이 성공적으로 늙을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예견하는 중요한 요소가 중년에 거의 완성되는 인성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불행하고 불평 많은 중년은 불행하고 불평 많은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기와 중년기에 열심히 생활한 사람은 노년기에도 열심히 살고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하게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의욕이 좌절되어 새롭게 노력하려는 욕구도 없고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거나 단순히 보존가치에만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정신적 불안에 빠져 여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기부터 정신적으로 자애, 자율, 자제를 익히고 자립심, 독립심, 융통성을 기르고 끊임없는 창조적 의욕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는 정년퇴직, 배우자 사별, 자녀의 독립, 친구의 죽음 등 주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고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기반인 역할상실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상실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29].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불안이나 고독감, 기능과 적응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러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30]. Antonucci et al.[31]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사회적 지지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느냐에 의해 개인의 성공적인 노화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노후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준비가 보다 노년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중년기의 생활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지,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2.2.2 노후준비 영향요인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현제까지의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영향력 있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다양한 변수로 측정된다.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결혼상태), 학력, 종교유무, 자녀유무, 월 소득(연 가구 총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건강상태(만성질환유무),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생활비, 주택소유, 부모부양, 양육자녀 수, 거주 지역, 전반적 생활여건, 노인인식연령 등이 변수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측정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연구주제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200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후준비유형을 분석한 박창제[32]에 따르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 지역, 전반적 생활여건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이신영[33]의 연구결과에서는 성별, 학력, 자녀유무, 월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만성질환 유무 등이 노후준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년여성의 사회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백수·이정화[34]의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 여가활동 참여여부,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노력, 친구와의 모임에 적극참여 변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노후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이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경제적 요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성공적 노후준비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35]. 가족특성 측면에서는 자녀로부터의 부양 기대와 부부관계·결혼만족도[36],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와 자녀수[37],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노후준비요인 외에도 노인교육[38], 경제적 불안성,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등의 성격특성[39], 직무만족과 직무몰입[40] 등도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41].

### 2.3 성공적 노화

오늘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얼마나 더 오래 사는 가보다는 질적 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늙어 가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노년을 강조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은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산적인, 풍요로운 노화 등의 의미로 설명되어 왔으나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42]. 일반적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건강상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심리사회적 건강과 삶의 만족이 높은 수준[43]을 의미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의 가능성 또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44], 가능한 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킬만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45]을 의미한다.

성공적 노화는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과정으로서 전 생애주기 관점을 강조하며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전제한다[46]. Rowe & Kahn[47]은 질병이 낮은 상태와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및 신체적 기능, 삶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로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면서 노화를 쇠퇴되어가는 시기만이 아닌 발달과 성장의 개념까지 내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성공적 노화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 생애 과정을 통해 단지 질병과 장애가 없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과 장애가 없음은 물론이고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유지, 적극적 인생참여, 인생후기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현방·최혜경[48]은 성공적 노화를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심리적 발달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미령[49]은 성공적 노화란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건강 등의 객관적인 조건 뿐 아니라 노후에도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율과 삶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삶의 에너지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공

적인 노화는 노화에 따른 쇠퇴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가 노년기 이전의 청년기 또는 중년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의 하위차원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는가 여부는 개인이 속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공적 노화개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생물학적 건강과 수명이 포함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심신의 능률, 생활만족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건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으나[50]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화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1].

Baltes & Baltes[52]는 수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성과 생산성, 개인적인 통제, 생활만족도를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통합적인 관점을 강조한 Mitchell[53]은 성공적 노화를 생물학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Crosnoe & Edler[54]는 가족참여, 직업에서의 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 등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파악하였다. 한편 Laditka et al. [55]은 성공적 노화에 대해 민족·인종 구분 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장수, 육체적 건강,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적 상태, 정신적 명료성, 적극적인 사회참여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국내의 연구들은 최근의 성공적 노화개념의 다차원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념과 구성요소를 사용하고 있다[56]. 홍현방[57]은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심리적, 사회관계적, 신체건강적, 정신건강의 측면으로 구성하였으며 박경란·이영숙[58]은 성공적 노화의 요인을 건강, 경제,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 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의 7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김미혜 외[59]는 성공적 노후의 차원을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사회통합, 환경적 안정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백지은·최혜경[60]은 한국노인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를 요인분석을 통해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자원의 확보, 과시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홍성희·곽인숙[61]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심리적 차원에서의 자기수용과 개인적 성장도, 신체적 차원에서 건강과 안락한 생활, 사회적 차원

에서 부모와 배우자 역할 및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성공적 노화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의 기준과 요인은 개인과 집단,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성공적인 노화와 성공적이지 못한 노화를 파악하려면 성공적인 노화의 요인 및 예측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62] 연령대별은 물론이고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63].

이러한 차원에서 안정신 외[64]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성공적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하는 성공적 노화모델이 중년층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노년기 성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차원들인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녕, 사회적 관계의 편안함, 경제적 안정이나 재산복 등과 중년세대에서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하는 개인적 성장과 의미추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중·노년기 모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차원을 포괄하는 성공적 노화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하위차원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일상의 안녕, 자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성장과 자기관리 및 자신의 삶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기효능감 등의 3가지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소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중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적 노화인식의 구성요소를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으로 규정한다.

### 2.3.1 일상의 안녕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주로 신체적 활동 및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일상의 안녕으로 설명하고 있다. 백지은·최혜경[65]은 일상의 안녕이란 건강, 경제, 가족지지, 자녀성공 등 삶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상태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 노화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내었다.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장기화된 노년에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배우자가 함께 살아가

는 것 등 사회적으로 위축된 상황을 가족중심의 강화로 극복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성공적 노화인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원이다. 안정신 외[66]는 일상의 안녕을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고 강조하였다.

### 2.3.2 심리사회적 안녕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발달 측면, 사회관계 측면의 심리사회적 안녕이 성공적 노화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심리사회적 측면은 신체와 정신건강, 자기수용과 자율 및 자기통제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과 인지적 기능 등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준거와 복지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한다[67]. 홍현방[68]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화에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 즉 심리사회적 안녕은 인생의 현 시기에 만족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인생의 최고 시기로서의 개인의 생각을 포함한다.

###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인지기능 및 생물학적 기능과 함께 성공적 노화의 여러 가지 예측인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69]. 안정신 외[70]는 자기효능감을 성공적 노화에 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타인과 긍정적인 교류, 목적의식, 자율성,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 환경적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행위를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상황에 적응하는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을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71].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중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500부이며 수거된 설문지 중 결측값이 없는 32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2 측정도구

#### 3.2.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성공적인 노화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안정신 외[72]가 개발한 한국 중노년층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의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일상의 안녕, 자아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애 만족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성장과 자기관리,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자기효능감 등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심리사회적 안녕 0.945, 일상의 안녕 0.929, 자기효능감 0.930으로 신뢰도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3.2.2 종속변수

한국 중년층의 노후준비도를 조사하기 위한 척도는 박현식[7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신체적 준비 0.849, 정서적 준비 0.843, 경제적 준비 0.773으로 높게 나타났다.

### 3.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통한 타당도 검증,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의 산출이 이루어졌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및 노후준비도의 차

이는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확인하였으며 Scheffé test를 통해 사후검증하였다.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및 논의

### 4.1 개인적 특성 및 연구변인별 특성

#### 4.1.1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

다음의 <Table 1>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은 남성 32.6%, 여성 67.4%로 여성이 약 2/3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5~40세 미만 23.7%, 45~50세 미만 18.9%, 40~45세 미만 18.6%의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45.6%, 대학원 재학 이상 11.5%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이 57.1%로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으며 결혼상태는 80.4%가 기혼이었고 종교를 가진 응답자는 66.8%이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23.7%, 주부 18.9%, 경영관리/전문직 18.0%, 순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41.3%로 비교적 높았으며 300~500만원 미만이 39.4%로 나타나 응답자의 경제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52.8%, 좋다 36.6%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에 있어서는 70세부터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75세부터도 15.8%로 나타나 노년기의 시작을 비교적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후계획 정도는 보통이 44.7%, 높은 경우가 33.2%로 70% 이상이 보통 혹은 높은 정도의 수준에서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사회활동정도는 보통이 51.6%, 높은 경우가 27.3%로 높은 사회활동수준을 보였다.

#### 4.1.2 연구변인별 특성

##### 가. 성공적 노화인식도와 노후준비도

다음의 <Table 2>는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인식의 전체 및 하위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평점에 3.25로 나타났다. 각 하위변인별로는 신체적 준비 3.23, 경제적 준비 2.983 정서적 준비 3.55으로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22)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Sex	Male	105(32.6)	Education	Below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38(11.8)
	Female	217(67.4)		Graduated from high school	100(31.1)
Age	Under 35-40	76(23.7)		Graduated from university	147(45.6)
	Under 40-45	60(18.6)		The postgraduate course or more	37(11.5)
	Under 45-50	61(18.9)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3,000,000	133(41.3)
	Under 50-55	49(15.2)		₩3,000,000-5,000,000	127(39.4)
	Under 55-60	43(13.4)		More than ₩5,000,000	62(19.3)
	Marriage status	Under 60-65	33(10.2)	Health	Bad
Single		30(9.3)	Average		170(52.8)
Married		259(80.4)	Good		118(36.6)
Religion	Divorce/Bereaved	33(10.2)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From 65	108(33.5)
	No	107(33.2)		From 70	163(50.7)
	Yes	215(66.8)		From 75	51(15.8)
Occupation	Housewife	61(18.9)	Plan for retirement	Low	71(22.1)
	Skilled/Labour	37(11.5)		Average	144(44.7)
	Sale/Self-employed	52(16.1)		High	107(33.2)
	Business management/Specialized	58(18.0)	Social activities	Low	68(21.1)
	Office job	76(23.7)		Average	166(51.6)
	Unemployed/Others	38(11.8)		High	88(27.3)

<Table 2> The level of the middle aged's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and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n=322)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SD)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SD)
All	3.252	.626	All	3.923	.695
Physical preparation	3.228	.791	Psychological well-being	3.839	.725
Economical preparation	2.983	.837	Comfortable everyday life	4.074	.749
Emotional preparation	3.546	.773	self-efficiency	3.900	.808

정서적 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준비가 낮은 변인은 경제적 준비로 보통 정도의 준비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경제적 준비도가 낮은 것은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전체 인식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92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각 하위변인별 평균에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3.84, 일상의 안녕 4.07, 자기효능감 3.90으로 일상의 안녕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일상의 안녕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 차이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 차이

다음의 <Table 3>은 중년층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 $F=10.057, p<.001$ ), 결혼상태( $F=4.115, p<.05$ ), 종교유무( $t=-3.784, p<.001$ ), 건강상태( $F=8.760, p<.001$ ), 노인연령인식( $F=3.799, p<.05$ ), 노후계획정도( $F=16.924, p<.001$ ), 사회활동정도( $F=14.109, p<.001$ )으로 나타났다. 60~65세 미만이 다른 연령층보

<Table 3>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the middle aged's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based on Individual peculiarities

Variables	Classification	Physical preparation			Economical preparation			Emotional preparation		
		M	SD	t/F	M	SD	t/F	M	SD	t/F
Sex	Male(n=105)	3.141	.776	-1.375	2.893	.818	-1.333	3.320	.808	<b>-3.723***</b>
	Female(n=217)	3.270	.796		3.026	.845		3.655	.732	
Age	Under 35-40(n=76)	2.950c	.670	<b>10.057***</b> <b>a&gt;b&gt;c</b>	2.929ab	.738	<b>3.364**</b> <b>a&gt;b</b>	3.474	.683	1.041
	Under 40-45(n=60)	3.097c	.669		2.880ab	.939		3.533	.713	
	Under 45-50(n=61)	3.079c	.861		2.875ab	.794		3.515	.800	
	Under 50-55(n=49)	3.233bc	.785		2.837b	.814		3.486	.899	
	Under 55-60(n=43)	3.660ab	.741		3.409a	.755		3.600	.733	
	Under 60-65(n=33)	3.812a	.707		3.152ab	.919		3.812	.864	
Education	Below Graduated from middle school(n=38)	3.453	.881	1.829	2.905	.910	1.170	3.468	1.000	2.610
	Graduated from high school(n=100)	3.272	.764		3.040	.852		3.438	.728	
	Graduated from university(n=147)	3.135	.788		2.917	.800		3.566	.760	
	The postgraduate course or more(n=37)	3.249	.753		3.168	.860		3.838	.603	
Marriage status	Single(n=30)	2.887b	.630	<b>4.115*</b> <b>a&gt;b</b>	2.747b	.822	<b>3.908*</b> <b>a&gt;b</b>	3.387	.772	.889
	Married(n=259)	3.240ab	.756		2.968ab	.779		3.572	.739	
	Divorce/Bereaved(n=33)	3.442a	1.072		3.315a	1.163		3.485	1.006	
Religion	No(n=107)	2.996	.762	<b>-3.784***</b>	2.828	.792	<b>-2.354*</b>	3.284	.821	<b>-4.411***</b>
	Yes(n=215)	3.343	.781		3.060	.850		3.676	.714	
Occupation	Housewife(n=61)	3.344	.674	1.852	2.961	.720	1.292	3.702	.649	<b>4.937***</b> <b>a&gt;b</b>
	Skilled/ Labour(n=37)	2.995	.817		2.768	.936		3.162	.947	
	Sale/Self-employed(n=52)	3.415	.686		3.165	.816		3.696	.700	
	Business management/ Specialized(n=58)	3.145	.896		2.993	.970		3.783	.673	
	Office job(n=76)	3.247	.726		3.042	.573		3.384	.747	
	Unemployed/Others(n=38)	3.100	.966		2.842	1.108		3.426	.864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3,000,000(n=133)	3.289	.859	.831	2.925	.897	2.701	3.480	.878	1.272
	₩3,000,000-5,000,000 (n=127)	3.162	.709		2.935	.746		3.556	.707	
	More than ₩5,000,000(n=62)	3.232	.801		3.203	.858		3.668	.644	
Health	Bad(n=34)	2.947b	.994	<b>8.760***</b> <b>a&gt;b</b>	2.676b	.926	<b>4.836**</b> <b>a&gt;b</b>	3.100c	1.030	<b>18.873***</b> <b>a&gt;b&gt;c</b>
	Average(n=170)	3.127b	.713		2.933ab	.740		3.424b	.687	
	Good(n=118)	3.454a	.784		3.142a	.912		3.851a	.695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From 65(n=108)	3.059b	.731	<b>3.799*</b> <b>a&gt;b</b>	2.854	.773	1.977	3.483	.726	1.613
	From 70(n=163)	3.321a	.816		3.056	.843		3.621	.765	
	From 75(n=51)	3.286a	.789		3.020	.926		3.439	.880	
Plan for retirement	Low(n=71)	2.825c	.848	<b>16.924***</b> <b>a&gt;b&gt;c</b>	2.366c	.823	<b>34.033***</b> <b>a&gt;b&gt;c</b>	3.166c	.827	<b>26.063***</b> <b>a&gt;b&gt;c</b>
	Average(n=144)	3.226b	.675		3.036b	.655		3.451b	.634	
	High(n=107)	3.497a	.789		3.320a	.849		3.925a	.749	
Social activities	Low(n=68)	2.876c	.815	<b>14.109***</b> <b>a&gt;b&gt;c</b>	2.744b	.862	<b>7.995***</b> <b>a&gt;b</b>	2.959c	.777	<b>38.210***</b> <b>a&gt;b&gt;c</b>
	Average(n=166)	3.213b	.701		2.936b	.708		3.580b	.668	
	High(n=88)	3.527a	.823		3.255a	.969		3.936a	.683	

\*p<.05, \*\*p<.01, \*\*\*p<.001, a, b, c: result of scheffé verification(a>b>c)

다, 이혼/사별이 미혼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쁘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70세부터와 75세부터인 경우가 65세부터보다, 노후계획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신체적 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영역에서는 연령( $F=3.364, p<.01$ ), 결혼상태( $F=3.908, p<.05$ ), 종교유무( $t=-2.354, p<.05$ ), 건강상태( $F=4.836, p<.01$ ), 노후계획정도( $F=34.033, p<.001$ ), 사회활동정도( $F=7.995,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55~60세 미만이 50~55세 미만보다, 이혼/사별이 미혼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적 준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노후계획정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높은 경우가 보통 혹은 낮은 경우보다 경제적 준비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준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성별( $t=-3.723, p<.001$ ), 종교유무( $t=-4.411, p<.001$ ), 건강상태( $F=18.873, p<.001$ ), 노후계획정도( $F=26.063, p<.001$ ), 사회활동정도( $F=38.210, p<.001$ )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좋거나 보통인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노후계획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정서적 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에서는 각 하위 변인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종교유무,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로서 노후준비에 있어서 이러한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차이

중년층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인 심리사회적 안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은 성별( $t=-4.400, p<.001$ ), 종교유무( $t=-2.674, p<.01$ ), 직업

( $F=5.216, p<.001$ ), 건강상태( $F=9.180, p<.001$ ), 노인연령인식( $F=4.171, p<.05$ ), 노후계획정도( $F=5.770, p<.01$ ), 사회활동정도( $F=11.940, p<.001$ )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직업이 주부, 경영관리/전문직, 무직/기타인 집단이 기술/노무직에 비해 성공적 노화에서 심리사회적 안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70세부터인 경우가 75세부터보다, 노후계획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심리사회적 안녕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의 안녕영역에서는 성별( $t=-3.272, p<.01$ ), 학력( $F=5.508, p<.01$ ), 종교유무( $t=-2.461, p<.05$ ), 직업( $F=6.389, p<.001$ ), 월 가구소득( $F=4.833, p<.01$ ), 건강상태( $F=11.917, p<.001$ ), 노인연령인식( $F=5.098, p<.01$ ), 노후계획정도( $F=13.853, p<.001$ ), 사회활동정도( $F=16.873,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이하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에서 일상의 안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 판매/자영업, 경영관리/전문직, 사무직, 무직/기타인 집단이 기술/노무직에 비해 일상의 안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나쁘거나 보통인 집단보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70세부터인 경우가 75세부터보다, 노후계획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일상의 안녕의 중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성별( $t=-3.873, p<.001$ ), 직업( $F=4.467, p<.01$ ), 건강상태( $F=4.139, p<.05$ ), 노인연령인식( $F=6.540, p<.01$ ), 사회활동정도( $F=6.242,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주부 및 경영관리/전문직인 집단이 기술/노무직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70세부터인 경우가 75세부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based on Individual peculiarities

Variables	Classific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Comfortable everyday life			self-efficiency		
		M	SD	t/F	M	SD	t/F	M	SD	t/F
Sex	Male(n=105)	3.590	.787	<b>-4.400***</b>	3.880	.842	<b>-3.272**</b>	3.650	.907	<b>-3.873***</b>
	Female(n=217)	3.959	.663		4.167	.682		4.014	.729	
Age	Under 35-40(n=76)	3.761	.584	.775	4.051	.682	.549	3.829	.706	.862
	Under 40-45(n=60)	3.868	.750		4.040	.755		3.940	.820	
	Under 45-50(n=61)	3.790	.776		4.077	.799		3.928	.898	
	Under 50-55(n=49)	3.796	.767		4.000	.853		3.837	.834	
	Under 55-60(n=43)	4.000	.765		4.239	.580		4.079	.682	
	Under 60-65(n=33)	3.912	.772		4.074	.839		3.752	.946	
Education	Below Graduated from middle school(n=38)	3.725	1.071	1.399	3.759b	1.115	<b>5.508** a&gt;b</b>	3.689	1.128	1.871
	Graduated from high school(n=100)	3.788	.680		3.987b	.730		3.814	.767	
	Graduated from university(n=147)	3.854	.662		4.132ab	.648		3.981	.723	
	The postgraduate course or more(n=37)	4.034	.632		4.398a	.554		3.984	.824	
Marriage status	Single(n=30)	3.600	.792	1.827	3.776	.983	2.669	3.593	.876	2.323
	Married(n=259)	3.867	.701		4.108	.693		3.926	.787	
	Divorce/Bereaved(n=33)	3.840	.828		4.074	.886		3.927	.876	
Religion	No(n=107)	3.687	.782	<b>-2.674**</b>	3.929	.846	<b>-2.461*</b>	3.785	.845	-1.728
	Yes(n=215)	3.915	.684		4.146	.686		3.950	.786	
Occupation	Housewife(n=61)	3.999a	.716	<b>5.216*** a&gt;b</b>	4.133a	.639	<b>6.389*** a&gt;b</b>	4.098a	.671	<b>4.467** a&gt;b</b>
	Skilled/Labour(n=37)	3.396b	1.038		3.517b	1.073		3.389b	1.082	
	Sale/Self-employed(n=52)	3.771ab	.618		4.074a	.632		3.881ab	.683	
	Business management/ Specialized(n=58)	4.071a	.622		4.362a	.628		4.066a	.813	
	Office job(n=76)	3.760ab	.601		4.064a	.653		3.850ab	.736	
	Unemployed/Others(n=38)	3.914a	.693		4.098a	.782		3.911ab	.817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3,000,000(n=133)	3.805	.838	.256	3.924b	.842	<b>4.833** a&gt;b</b>	3.857	.894	.248
	₩3,000,000-5,000,000 (n=127)	3.864	.674		4.156ab	.694		3.923	.764	
	More than ₩5,000,000(n=62)	3.862	.552		4.226a	.576		3.919	.706	
Health	Bad(n=34)	3.524b	1.126	<b>9.180*** a&gt;b</b>	3.731b	1.197	<b>11.917*** a&gt;b</b>	3.594b	1.198	<b>4.139* a&gt;b</b>
	Average(n=170)	3.762ab	.660		3.975b	.697		3.864ab	.757	
	Good(n=118)	4.041a	.614		4.315a	.571		4.027a	.717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From 65(n=108)	3.822ab	.695	<b>4.171* a&gt;b</b>	4.048ab	.750	<b>5.098** a&gt;b</b>	3.909ab	.764	<b>6.540** a&gt;b</b>
	From 70(n=163)	3.926a	.691		4.176a	.664		3.998a	.767	
	From 75(n=51)	3.595b	.842		3.801b	.926		3.537b	.935	
Plan for retirement	Low(n=71)	3.66b	.924	<b>5.770** a&gt;b</b>	3.899b	.980	<b>13.853*** a&gt;b</b>	3.828	.950	2.860
	Average(n=144)	3.790ab	.660		3.938b	.673		3.815	.779	
	High(n=107)	4.019a	.620		4.372a	.563		4.047	.728	
Social activities	Low(n=68)	3.515b	.908	<b>11.940*** a&gt;b</b>	3.704c	1.008	<b>16.873*** a&gt;b&gt;c</b>	3.644b	.989	<b>6.242** a&gt;b</b>
	Average(n=166)	3.851a	.670		4.066b	.665		3.890ab	.751	
	High(n=88)	4.067a	.565		4.373a	.499		4.098a	.706	

\*p<.05, \*\*p<.01, \*\*\*p<.001, a, b, c: result of scheffé verification(a>b>c)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 직업, 건강상태, 노인연령인식, 사회활동 정도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 4.2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성공적 노화인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노후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인연령인식,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이며 이 중 성별,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은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둘째, 2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성공적 노화인식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았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은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확인하였다. VIF값은 1 이상일 경우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며 10이하로 나타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종속변수인 노후준비도는 요인분석에서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의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므로 각 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2.1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영향력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의 전체 평균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노후준비도의 전체 평균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13.949$ ,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42.3\%(R^2=.423)$ 로 나타났다. VIF값은  $1.150\sim$

$2.688$ 의 값을 보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 $t=3.213$ ,  $p<.01$ ), 연령( $t=3.078$ ,  $p<.01$ ), 결혼상태( $t=2.374$ ,  $p<.05$ ), 종교유무( $t=2.426$ ,  $p<.05$ ), 직업3( $t=2.734$ ,  $p<.01$ ), 직업5( $t=2.660$ ,  $p<.01$ ), 건강상태( $t=2.723$ ,  $p<.01$ ), 노후계획정도( $t=7.050$ ,  $p<.001$ ), 사회활동정도( $t=4.993$ ,  $p<.001$ )는 노후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반면에 월 가구소득( $t=-2.256$ ,  $p<.05$ )은 노후준비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 또는 사별일 경우, 종교가 있을 경우, 판매 또는 자영업과 사무직일 경우,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의 전체 평균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의 F통계값이  $20.118$ 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4.4\%(R^2=.544)$ 로 나타나 1단계보다  $12.1\%(\Delta R^2=.121)$  증가하였다. VIF값의 경우  $1.173\sim 2.691$ 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개인적 특성 변인의 월 가구소득( $t=-2.319$ ,  $p<.05$ )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노후준비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외에 성별( $t=2.723$ ,  $p<.01$ ), 연령( $t=3.005$ ,  $p<.01$ ), 종교유무( $t=2.879$ ,  $p<.01$ ), 직업3( $t=2.674$ ,  $p<.01$ ), 직업5( $t=2.791$ ,  $p<.01$ ), 건강상태( $t=2.065$ ,  $p<.05$ ), 노후계획정도( $t=6.347$ ,  $p<.001$ ), 사회활동정도( $t=3.735$ ,  $p<.001$ )는 노후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던 결혼상태의 이혼 또는 사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판매 또는 자영업과 사무직일 경우,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도와의 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인식( $t=6.756$ ,  $p<.001$ )은 노후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301$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Independent factors		Stage		1st Stage			2nd Stage		
		B	$\beta$	t	B	$\beta$	t		
Individual peculiarities	Sex <sup>1)</sup>	.228	.171	3.213**	.175	.131	2.723**		
	Age	.064	.169	3.078**	.056	.147	3.005**		
	Education	.012	.017	.304	.035	.047	.927		
	Marriage <sup>2)</sup>								
	Marriage1	.182	.115	1.804	.101	.064	1.120		
	Marriage2	.324	.157	2.374*	.230	.112	1.885		
	Religion <sup>3)</sup>	.154	.116	2.426*	.169	.128	2.979**		
	Occupation <sup>4)</sup>								
	Occupation1	.154	.097	1.428	.110	.069	1.138		
	Occupation2	.029	.015	.237	.018	.009	.164		
	Occupation3	.303	.178	2.734**	.264	.156	2.674**		
	Occupation4	.122	.075	1.148	.026	.016	.272		
	Occupation5	.280	.190	2.660**	.261	.178	2.791**		
	Monthly family income	-.094	-.112	-2.256*	-.087	-.103	-2.319*		
	Health	.134	.136	2.723**	.091	.093	2.065*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036	-.039	-.834	-.005	-.005	-.127			
Plan for retirement	.294	.346	7.050***	.239	.281	6.347***			
Social activities	.222	.246	4.993***	.151	.167	3.735***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271	.301	6.756***		
F		13.949***			20.118***				
R <sup>2</sup>		.423			.544				
$\Delta R^2$					.121				

\* $p < .05$ , \*\* $p < .01$ , \*\*\* $p < .001$

1) Sex(Male=0, Female=1), 2) Marriage(Single=0), Marriage1(Married=1), Marriage2(Divorce/Bereaved=1), 3)Religion(No=0, Yes=1), 4) Occupation(Unemployed/Others=0), Occupation1(Housewife=1), Occupation2(Skilled/Labour=1), Occupation3(Sale/Self-employed=1), Occupation4(Business management/Specialized=1), Occupation5(Office job=1)

#### 4.2.2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도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

가. 성공적 노화인식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 성공적 노화인식의 요인인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6.641$ ,  $p < .001$ 에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25.8%( $R^2=.258$ )이었다. VIF값은 1.150~2.688의 값을 보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수

들 간의 투입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연령,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였다. 영향요인 중 월 가구소득( $t=-2.786$ ,  $p < .01$ )은 신체적 준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를 위한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t=5.669$ ,  $p < .001$ ), 직업5( $t=2.051$ ,  $p < .05$ ), 건강상태( $t=2.195$ ,  $p < .05$ ), 노후계획정도( $t=2.064$ ,  $p < .05$ )는 신체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직일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계획정도가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physic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Independent factors		1st Stage			2nd Stage		
		B	$\beta$	t	B	$\beta$	t
Individual peculiarities	Sex <sup>1)</sup>	.119	.056	.929	.029	.013	.227
	Age	.213	.352	5.669***	.199	.330	5.437***
	Education	-.095	-.080	-1.276	-.112	-.095	-1.538
	Marriage <sup>2)</sup>						
	Marriage1	.147	.059	.809	.054	.021	.302
	Marriage2	.196	.060	.794	.114	.034	.468
	Religion <sup>3)</sup>	.088	.042	.766	.071	.033	.629
	Occupation <sup>4)</sup>						
	Occupation1	.184	.072	.941	.179	.070	.935
	Occupation2	-.135	-.043	-.611	-.023	-.007	-.107
	Occupation3	.200	.074	1.000	.215	.079	1.097
	Occupation4	-.125	-.048	-.649	-.146	-.056	-.777
	Occupation5	.390	.166	2.051*	.399	.170	2.150*
	Monthly family income	-.210	-.157	-2.786**	-.177	-.132	-2.380*
	Health	.195	.124	2.195*	.151	.096	1.730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007	-.005	-.093	.031	.021	.411	
Plan for retirement	.156	.115	2.064*	.117	.086	1.565	
Social activities	.124	.086	1.542	.061	.042	.766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ical well-being				.183	.183	3.558***
	Comfortable everyday life				.102	.102	1.864
	self-efficiency				.115	.115	2.307*
F		6.641***			6.922***		
R <sup>2</sup>		.258			.303		
$\Delta R^2$					.045		

\* $p < .05$ , \*\* $p < .01$ , \*\*\* $p < .001$

1) Sex(Male=0, Female=1), 2) Marriage(Single=0), Marriage1(Married=1), Marriage2(Divorce/Bereaved=1), 3) Religion(No=0, Yes=1), 4) Occupation(Unemployed/Others=0), Occupation1(Housewife=1), Occupation2(Skilled/Labour=1), Occupation3(Sale/Self-employed=1), Occupation4(Business management/Specialized=1), Occupation5(Office job=1)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성공적 노후인식의 3개 하위요인인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의 F통계값이 6.922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30.3%( $R^2 = .303$ )로 나타나 1단계보다 4.5%( $\Delta R^2 = .045$ ) 증가하였다. VIF값의 경우 1.079~2.707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 변인의 월 가구소득( $t = -2.380$ ,  $p < .05$ )은 신체적 준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연령( $t = 5.437$ ,  $p < .001$ ), 직업5( $t = 2.150$ ,  $p < .05$ )은 신체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직

일 경우 노후를 위한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인식과 신체적 준비 간의 영향관계에서 일상의 안녕은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이를 제외한 심리사회적 안녕( $t = 3.558$ ,  $p < .001$ )과 자기효능감( $t = 2.307$ ,  $p < .05$ )이 신체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체적 준비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심리사회적 안녕( $\beta = .183$ ), 자기효능감( $\beta = .115$ )의 순으로 나타나 중년층이 노후를 위한 신체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 심리사회적 안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층이 다른 사람 돕기, 사회적

<Table 7>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economic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Independent factors		1st Stage			2nd Stage		
		B	$\beta$	t	B	$\beta$	t
Individual peculiarities	Sex <sup>1)</sup>	.198	.093	1.440	.200	.094	1.431
	Age	-.028	-.047	-.707	-.029	-.048	-.717
	Education	.013	.011	.158	.005	.004	.058
	Marriage <sup>2)</sup>						
	Marriage1	.192	.076	.986	.179	.071	.907
	Marriage2	.695	.211	2.635**	.674	.205	2.523*
	Religion <sup>3)</sup>	.068	.032	.551	.069	.032	.556
	Occupation <sup>4)</sup>						
	Occupation1	-.039	-.015	-.186	-.028	-.011	-.132
	Occupation2	.172	.055	.725	.195	.062	.810
	Occupation3	.295	.109	1.379	.292	.107	1.348
	Occupation4	.081	.031	.392	.069	.027	.334
	Occupation5	.273	.116	1.340	.268	.114	1.306
	Monthly family income	.057	.043	.707	.048	.036	.588
	Health	.004	.002	.038	-.002	-.001	-.021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010	.006	.115	.017	.012	.201
Plan for retirement	.410	.302	5.078***	.400	.294	4.851***	
Social activities	.071	.049	.828	.063	.044	.713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ical well-being				-.012	-.012	-.217
	Comfortable everyday life				.055	.055	.914
	self-efficiency				-.009	-.009	-.159
F		3.388***			2.884***		
R <sup>2</sup>		.151			.154		
$\Delta R^2$					.003		

\* $p < .05$ , \*\* $p < .01$ , \*\*\* $p < .001$

1) Sex(Male=0, Female=1), 2) Marriage(Single=0), Marriage1(Married=1), Marriage2(Divorce/Bereaved=1), 3) Religion(No=0, Yes=1), 4) Occupation(Unemployed/Others=0), Occupation1(Housewife=1), Occupation2(Skilled/Labour=1), Occupation3(Sale/Self-employed=1), Occupation4(Business management/Specialized=1), Occupation5(Office job=1)

여, 친척과 좋은 관계 유지, 다양한 활동 참여 등 심리사회적인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신체적인 부분에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 등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신체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성공적 노화인식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Table 7>은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경

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의 요인인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3.388$ ,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5.1%( $R^2=.151$ )로 나타났다. VIF값은 1.150~2.688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노후준비도의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결혼상태와 노후계획정도로 결혼상태2( $t=2.635$ ,  $p < .01$ ), 노후계



(Table 8)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emotion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Independent factors		1st Stage			2nd Stage		
		B	$\beta$	t	B	$\beta$	t
Individual peculiarities	Age <sup>1)</sup>	.313	.147	2.550*	.198	.093	1.675
	Age	-.022	-.036	-.613	-.039	-.064	-1.136
	Education	.130	.110	1.836	.110	.093	1.624
	Marriage <sup>2)</sup>						
	Marriage1	.128	.051	.736	.013	.005	.081
	Marriage2	.007	.002	.028	-.091	-.028	-.401
	Religion <sup>3)</sup>	.266	.126	2.423*	.243	.114	2.318*
	Occupation <sup>4)</sup>						
	Occupation1	.255	.100	1.364	.249	.098	1.398
	Occupation2	.039	.013	.186	.176	.056	.867
	Occupation3	.297	.110	1.553	.321	.118	1.756
	Occupation4	.374	.144	2.032*	.351	.135	2.001*
	Occupation5	.051	.022	.278	.066	.028	.384
	Monthly family income	-.097	-.073	-1.350	-.054	-.040	-.778
	Health	.162	.103	1.908	.107	.068	1.308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110	-.075	-1.480	-.063	-.043	-.887
Plan for retirement	.276	.203	3.824***	.228	.168	3.270**	
Social activities	.399	.277	5.194***	.320	.222	4.306***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ical well-being				.240	.240	4.996***
	Comfortable everyday life				.121	.121	2.355*
	self-efficiency				.139	.139	2.985**
F		9.062***			10.352***		
R <sup>2</sup>		.322			.394		
$\Delta R^2$					.072		

\* $p < .05$ , \*\* $p < .01$ , \*\*\* $p < .001$

1) Sex(Male=0, Female=1), 2) Marriage(Single=0, Marriage1(Married=1), Marriage2(Divorce/Bereaved=1), 3) Religion(No=0, Yes=1), 4) Occupation(Unemployed/Others=0), Occupation1(Housewife=1), Occupation2(Skilled/Labour=1), Occupation3(Sale/Self-employed=1), Occupation4(Business management/Specialized=1), Occupation5(Office job=1)

획정도( $t=5.078, p<.001$ )는 경제적 준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현재 이혼 혹은 사별하였거나 노후 계획정도가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2단계 회귀모형에서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의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F=2.884,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5.4%( $R^2=.154$ )로 1단계보다 0.3%( $\Delta R^2=.003$ )의 증가를 보였다. VIF값의 경우 1.079~2.707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 변인의 결혼상태2( $t=2.523, p<.05$ ), 노후계획정도

( $t=4.851, p<.001$ )가 경제적 준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해 혼자서 노후를 준비하거나 노후계획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한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공적 노화인식이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Table 8>은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정서적 준

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의 요인인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9.062,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2.2\%(R^2=.322)$ 로 나타났다. VIF값은 1.150~2.688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노후준비도의 정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성별 ( $t=2.550, p<.05$ ), 종교유무( $t=2.423, p<.05$ ), 직업 4( $t=2.032, p<.05$ ), 노후계획정도( $t=3.824, p<.001$ ), 사회활동정도( $t=5.194, p<.001$ )로서 정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경영관리/전문직인 경우, 그리고 노후계획 정도와 사회활동정도가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정서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의 3개 하위요인인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의 F통계값이 10.352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39.4\%(R^2=.303)$ 로 나타나 1단계보다  $7.2\%(\Delta R^2=.072)$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VIF값의 경우 1.079~2.707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인적 특성 변인의 종교유무( $t=2.318, p<.05$ ), 직업 4( $t=2.001, p<.05$ ), 노후계획정도( $t=3.270, p<.01$ ), 사회활동정도( $t=4.306, p<.001$ )가 정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인식과 정서적 준비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t=4.996, p<.001$ ), 일상의 안녕( $t=2.355, p<.05$ ), 자기효능감( $t=2.985, p<.01$ )의 성공적 노화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이 영향요인으로서 정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심리사회적 안녕( $\beta=.240$ ), 자기효능감( $\beta=.139$ ), 일상의 안녕( $\beta=.121$ )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으로써 중년층이 노화를 위한 정서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 심리사회적 안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의 경우 다른 사람 돕기, 사회기여, 친척과 좋은 관계 유지, 다양한 활동 참여 등 심리사회적인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정서적으

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 등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대소변에 문제가 없는 것, 경제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등 일상의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정서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기화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도 높다. 특히 노년기로의 이행을 앞에 두고 있는 중년층에게는 노년기의 질적인 삶을 위한 준비가 당면과제로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스스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가는 것이 가장 매우 중요한 생활과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수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것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35~65세 미만 중년층 3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중년층의 노후준비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변인별로는 정서적 준비가 가장 높았고 가장 준비가 낮은 변인은 경제적 준비로 보통 정도의 준비수준을 보였다.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하위변인별로는 일상의 안녕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에서는 각 하위변인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종교유무,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이었으며 연령, 결혼상태는 신체적 준비와 경제적 준비에서 차이를 보였다. 노인연령인식은 신체적 준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은 정서적 준비에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노후계획정도와 사회활동정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서적 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65세 미만이 신체적 준비가 높은 반면에 경제적 준비는 55~60세 미만이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의 차이에서는 각 하위변인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 직업, 건강상태, 노인연령인식, 사회활동정도였다. 종교유무, 노후계획정도는 심리사회적 안녕과 일상의 안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 월 가구소득은 일상의 안녕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70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 경우, 사회활동정도가 높은 경우 성공적 노화인식수준이 높았다.

넷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판매/자영업과 사무직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계획정도와 사회활동정도가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은 연령,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직일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계획정도가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를 위한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변인은 결혼상태, 노후계획정도로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서 노후를 준비하거나 노후계획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한다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의 정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성별, 종교유무, 직업,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로서 여성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경영관리/전문직인 경우, 노후계획정도와 사회활동정도가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정서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다섯째,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은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beta$ .301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별 노후준비도의 하위변인에 대한 영향관계에

서는 성공적 노화인식의 일상의 안녕을 제외한 심리사회적 안녕과 자기효능감은 신체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준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심리사회적 안녕( $\beta$ .183), 자기효능감( $\beta$ =.115)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중년층이 노후를 위한 신체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 심리사회적 안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층의 경우 다른 사람 돕기, 사회기여, 친척과 좋은 관계 유지, 다양한 활동 참여 등 심리사회적인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신체적인 부분에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 삶의 철저 관리, 성장능력 구비, 목표달성 역량 등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신체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공적 노화인식과 정서적 준비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의 성공적 노화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이 영향요인으로서 정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심리사회적 안녕( $\beta$ .240), 자기효능감( $\beta$ .139), 일상의 안녕( $\beta$ .121)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으로써 중년층이 노후를 위한 정서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 심리사회적 안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년층의 경우 심리사회적인 안녕,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 일상의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정서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층의 노후준비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특히 경제적 준비가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은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응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노후의 경제적 준비관련 교육 및 컨설팅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 중 심리사회적 안녕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서 자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질적인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층 또는 노년층

을 대상으로 단순한 취미·오락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 수준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자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연구결과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35세-65세 미만의 건강강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중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중년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적 비교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Moon-Jo Ba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preparing for their old age in middle age on the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6, No. 1, pp. 45-61, 2011.
- [2] Choon-Kwang Ha, Study of middle aged's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reference and occupation intention of Silver town for the aged. *Social Welfare Policy*. Vol. 24, pp. 201-224, 2006.
- [3] Vaillant, G. E., & K. Mukamal, Successful ag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58, No. 6, pp. 839-847, 2001.
- [4] Lachman, M. E.,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1.
- [5] Levinson, D. J.,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8.
- [6] Jeong-Hwa Lee,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Financial &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0, No. 2, pp. 275-289, 2009.
- [7] Myung-Ja Kim, *Midlife development*. Seoul: Kyomunsa, 1998
- [8] Moon-Jo Bae, Middle aged People's Attitudes toward Elderly and Preparations for their Old ag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3, pp. 1107-1122, 2009.
- [9] Kyung-Hee Jung, Policy issues accompanied with baby boomers' going into old age. Reference book of periodical academic conference in fall and welfare finance DB academic conference by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No. 2, pp. 1-22, 2010.
- [10] Gyong-Hae Han, & Young-Joo Noh, A qualitative study on change experience and coping of the middle aged's in their 40's turning point, *Family and Culture*, Vol. 12, No. 1, pp. 67-91, 2000.
- [11] Ok-Hyun Bae,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Middle Aged of their Old-Age Life. Ph. D.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1990.
- [12] Gross, H. I., E. W. Crandall., & M. 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3rd)*. New York: Meredith Cooperation, 1973.
- [13] Sook-Ja Hong, *Grontology*. Seoul: Hongmoon gac, 2000
- [14] Gwee-Yeon jeon, & Moon-Jo Bae, Study on the Perception and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8, No. 1, pp. 13-24, 2010.
- [15] Chu-Yong Cho, Mi-Young Song, & Keun-Sun Lee,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3, pp. 135-156, 2009.
- [16] In-Soon You, & Soo-Il Choi, Effects of the Personality Trait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Behaviors for the Old Age -Focused on the Cheon-An Industrial Complex's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4, pp. 245-262, 2012.
- [17] Anderson, M., Y. Li Bechhofer, F. D. McCrone, & R. Stewart, Sooner rather than Later?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Preparing for Retirement.

- Ageing and Society, Vol. 20, pp. 445-466, 2000.
- [18] Laditka, S. B., J. S. Corwin, N. J. Laditka, L. Liu, W. Tseng, B. Wu, L. R. Beard, R. J. Sharkey, & L. S. Ivey, Attitudes about aging well among a diverse group of older americans: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gnitive health. *The Gerontologist*, Vol. 49, pp. 1-39, 2009.
- [19] McClland, K. A., Self-conception and satisfaction: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Vol. 36, pp. 723-732, 1982.
- [20] Peterson, D. A., *Facilitating Education for Older Leader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3.
- [21] Rowe, J. W., & L. R.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1998.
- [22] Hyun-Sook Park, A Study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The New Medical Journal*. Vol. 38, No. 9, pp. 97-105, 1995.
- [23] Yun-Hee Shin, & Seung-Eun Chung, A Study on the Mood State of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17, No. 1, pp. 194-205, 1997.
- [24] Chang-Hee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capacity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patients. Master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95.
- [25] Seung-Eun Cha, & Gyong-Hae Han, Occupation, family, and the Middle Aged's physical Health-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Family and Culture*, Vol. 15, No. 2, pp. 33-60, 2003.
- [26] Suk-Tae Hong, The Effects of the Elder's life on making provision for Elderly Education of pre-old adults in Korea.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2007.
- [27] Moen, P., & E. Wethington, Midlife development in a life course context, in L. S. Willis, & D. J. Reid (eds), *Life in the Middle*. San Diego: Academic Press, 1999.
- [28] Neugarten, B. L., *Personality and Aging*, *Handbook of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pp. 619-625, 1968.
- [29] Mi-Pyo H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Aging Process among Elderly Citizens of Daegu in terms of Marital Status and Degree of Social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18, No. 1, pp. 121-139, 1980.
- [30] Nam-Soon Kim, Studies in the middle-aged workers' recognition of their retirement plans - Relation between personal, socioeconomic factors, and the government policy-. Ph. D. dissertation, Kyungwon University, 2009.
- [31] Antonucci, T. C., H. Akiyama, & K. Takahashi,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Vol. 6, pp. 353-370, 2004.
- [32] Chang-Je Park,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0, No. 3, pp. 275-297, 2008.
- [33] Shin-Young Lee, A Study on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the Elderly Who are Residing in the City A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8, No. 1, pp. 205-224,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2009.
- [34] Beag-Su Kim, & Jeong-Hwa Lee, Determinants of Middle Aged's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Focused on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1, No. 3, pp. 411-425, 2010.
- [35] Myung-Hwa Choi, & Soo-Il Choi, Relations among Personal,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eparation for the Old Age-Focused on the Workers in the Banwol · Siwha Industrial Complex,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6, pp. 249-264, 2012.
- [36] Hyeok-Chang Kwon, Hye-Ri Shin, & Jin-Soo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Old Life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32, No. 4, pp. 219-248, 2012.
- [37] Soon-Dool Chung, & Hyun-Hee Lee, Relationship

- between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 Comparison of Babyboomers and the Pre-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8, pp. 209-232, 2012.
- [38] Suk-Tae Hong, & Hae-Sool Yang, Effects of Recognition of Elderly Education on Provision for Old Age among Middle-Aged and Aged Peopl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8, No. 5, pp. 287-299, 2008.
- [39] In-Soon You, & Soo-Il Choi, Effects of the Personality Trait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Behaviors for the Old Age -Focused on the Cheon-An Industrial Complex's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4, pp. 245-262, 2012.
- [40] Myung-Hwa Choi, & Soo-Il Choi, Relations among Personal,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eparation for the Old Age -Focused on the Workers in the Banwol · Siwha Industrial Complex,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6, pp. 249-264, 2012.
- [41] Hyeok-Chang Kwon, Hye-Ri Shin, & Jin-Soo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Old Life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32, No. 4, pp. 219-248, 2012.
- [42] Schultz, R., & J. Heckhausen,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1, No. 7, pp. 702-714, 1996.
- [43] Wong, Paul T. F, Personal Meaning Successful Aging. *Canadian Psychology*, Vol. 30, No. 3, pp. 516-525, 1989.
- [44] Gibson, R. C., Promoting successful and productive aging on minority populations, in A. L. Bond, J. S. Cutler, & A. Grams, Promoting successful and productive aging. CA: Academic Press, pp. 279-288, 1995.
- [45] Rowe, J. W., & L. R.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 42, pp. 725-726, 2002.
- [46] Mee-Hye Kim, Kyung-Rim Shin, Hye-Kyong Choi, & Mi-Sun Kang, The Factor of Successful Aging types in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6, No. 1, pp. 91-104, 2005.
- [47] Rowe, J. W., & L. R.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1998.
- [48] Hyun-Bang Hong, & Hea-Kyung Choi, A Review of Literature = In Search of a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1, No. 2, pp. 145-154, 2003.
- [49] Mee-Ryoung Kim,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1, pp. 33-48, 2008.
- [50] Vaillant, G. E., Successful Aging and Psychosocial Well-Being: Evidence from a 45-year study, in H. E. Thompson Jr.(eds), *Older Men's Liv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1994.
- [51] Tate, R. B., L. Lah, & E. T. Cuddy,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by elderly Canadian male, *The Gerontology*, Vol. 43, pp. 735-742, 2003.
- [52] Baltes, B. P., & M. M. Balte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Press, 1990.
- [53] Mitchell, B. A., Successful aging: Integrating contemporary ideas, research finding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amily Relations*, Vol. 51, No. 3, pp. 283-284, 2002.
- [54] Crosnoe, R., & H. G. Edler, Jr.,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5, No. 4, pp. 309-328, 2002.
- [55] Laditka, S. B., J. S. Corwin, N. J. Laditka, L. Liu, L., W. Tseng, B. Wu, L. R. Beard, R. J. Sharkey, & L. S. Ivey, Attitudes about aging well among a diverse group of older Americans: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gnitive health. *The Gerontologist*, Vol. 49, pp. 1-39, 2009."

- [56] Sung-Hee Hong, & In-Sook Kwak, The Effects of Attitude towards Aging on Successful Aging: The Differences between Single and Couple Aged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9, No. 4, pp. 77-91, 2011.
- [57] Hyun-Bang Hong, Successful Aging and religiosity among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3, pp. 245-259, 2002.
- [58] Kyung-Rhan Park, & Yeong-Suk Yi, A study on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3, pp. 53-66, 2002.
- [59] Mee-Hye Kim, Kyung-Rim Shin, Hye-Kyoung Choi, & Mi-Sun Kang, A study of successful aging experience of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No. 2, pp. 79-95, 2004.
- [60] Jee-Eun Baik, & Hye-Kyoung Choi,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Korean Elderly: The Definition, Types, and Predicting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3, No. 3, pp. 1-16, 2005.
- [61] Sung-Hee Hong, & In-Sook Kwak, The Effects of Attitude towards Aging on Successful Aging: The Differences between Single and Couple Aged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9, No. 4, pp. 77-91, 2011.
- [62] Vaillant, G. E., Successful Aging and Psychosocial Well-Being: Evidence from a 45-year study, in H. E. Thompson Jr.(eds), *Older Men's Liv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1994.
- [63] Fisher, B. J.,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41, No. 3, pp. 239-251, 1995.
- [64] Jeong-Shin An, In Kang, & Yun-Jeong Kim, Development of successful aging measurement for Korean mid to later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3, No. 4, pp. 225-245, 2009.
- [65] Jee-Eun Baik, & Hye-Kyoung Choi,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Korean Elderly: The Definition, Types, and Predicting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3, No. 3, pp. 1-16, 2005.
- [66] Jeong-Shin An, In Kang, & Yun-Jeong Kim, Development of successful aging measurement for Korean mid to later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3, No. 4, pp. 225-245, 2009.
- [67] Jeong-Shin An, In Kang, & Yun-Jeong Kim, Development of successful aging measurement for Korean mid to later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3, No. 4, pp. 225-245, 2009.
- [68] Hyun-Bang Hong, Successful Aging and religiosity among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3, pp. 245-259, 2002.
- [69] Jong-Han Park, Social,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Determinants of Successful Aging. Ph. D.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2006.
- [70] Jeong-Shin An, In Kang, & Yun-Jeong Kim, Development of successful aging measurement for Korean mid to later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3, No. 4, pp. 225-245, 2009.
- [71] Myoung-Ja Wang, Eun-Ju Seo, & Nam-Hyun Cha, A Study on Self-Achievements and Related Factors in Elder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 20, No. 1, pp. 23-30, 2009.
- [72] Jeong-Shin An, In Kang, & Yun-Jeong Kim, Development of successful aging measurement for Korean mid to later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3, No. 4, pp. 225-245, 2009.
- [73] Hyun-Sik Park,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aration for the Old age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their Successful Ag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8, pp. 281-302, 2012.

강 성 옥(Sung Ok, Kang)



- 2009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11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2012년 5월 ~ 현재 :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정부, 지방행정혁신, 디지털 융합  
· E-Mail : tjddhr2000@hanmail.net

하 규 수(Ha, Kyu Soo)



- 1998년 6월 : 미국 Touro법과전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현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2002년 2월 ~ 현재 :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창업, 벤처, 경영전략, 상거래법  
· E-Mail : ksh@hoseo.edu